

# “밤에 더 빛나는 대숲”... 담양 대나무축제 ‘팡파르’

내달 1-5일 닷새 간 축권원 일원 야간경관·체류형 콘텐츠 강화 대숲영화관 등 이색 체험 풍성 대나무 활용 전통 프로그램도



지난해 열린 '제24회 담양 대나무축제'에서 관광객들이 대나무 뗏목을 탑승해 축제장 일원을 둘러보고 있다.

〈담양군 제공〉

문화체육관광부 명예 문화관광축제인 '담양 대나무축제'가 올해로 25회를 맞아 한층 화려해진 야간 경관과 다채로운 체류형 프로그램으로 전국의 관광객을 맞이한다.

22일 담양군에 따르면 '빛나라 빛나, 대나무!'를 슬로건으로 내건 올해 축제는 오는 5월1일부터 5일까지 닷새간 축권원과 종합체육관, 담빛음악당 일원에서 펼쳐진다.

특히 이번 축제는 '낮보다 아름다운 담양의 밤'을 주제로 밤까지 즐길 수 있는 체류형 콘텐츠를 대폭 강화해 기존 축제와 차별화를 꾀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야간 경관의 대대적인 확충으로, 축권원 봉황루의 화려한 조명 연출과 관방천을 수놓는 수상 조형 등 축제장 전역을 빛으로 연출해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낼 예정이다.

특히 오후 9시까지 야간 개장하는 축권원에서는 대숲 야경을 배경으로 영화를 관람하는 '대숲 영화관'을 처음으로 선보여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이색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볼거리와 즐길 거리 역시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도록 개막식에서는 담양의 새로운 관광 캐릭터를 처음으로 공개하는 브랜드 선포식이 열리며, 축제장 곳곳에 캐릭터 팝업스토어와 포토존

을 설치해 활력을 불어넣는다. 무대 공연으로는 윤도현 밴드를 비롯해 남진, 알리, 황민호 등 인기 가수들이 총출동해 축제 열기를 더한다.

## 보성군, 중소기업 전주기 성장 체계 돕는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발굴·육성

내달 8일까지... 최대 5천만원 지원

보성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성장 잠재력이 높은 관내 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체계적인 기업 지원에 나선다.

22일 보성군에 따르면 다음 달 8일까지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을 다지는 '새싹 키움터 사업' 참여 기업을 전남테크노파크 기업혁신성장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기업의 발전 단계와 특성에 맞춰 맞춤형 자금을 차등 지원한다.

세부 지원 규모는 스타기업 1개사에 최대 5천만원, 일자리 키움 기업 4개사에 각 최대 2천500만원, 전시회 참가 기업 4개사에 각 최대 300만원이다.

특히 단순한 재정 지원에 그치지 않고 기술 개발, 사업화, 마케팅 등 총 8개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 지원을 제공해 지역 기업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전주기적 성장 체계를 구축한 것이 핵심이다.

군은 사업의 원활한 전문적 운영을 위해 앞서 지난 1일 전남테크노파크와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17일에는 지역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세부 사업설명회를 열어 현장의 이해도를

높였다. 보성군 관계자는 "유망한 지역 기업을 집중 육성해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앞으로도 단계별 맞춤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기업이 튼튼하게 뿌리내릴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보성=임병언 기자

〈사진〉

## 화순군-원협, 한국 난·원예작물 활성화 맞손

부경·도곡원예농협과 MOU

화순군은 지역 농가 소득 증대와 난(蘭) 산업의 부흥을 이끌기 위해 유관 농협들과 손을 맞잡고 본격적인 원예작물 교류 및 시장 개척에 나선다.

22일 화순군에 따르면 최근 부경원예농협, 도곡농협과 '한국 난 산업 활성화 및 원예작물 교

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종란 산업화 저변 확대와 원예작물 유통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마련됐으며, 한국난문화협회 부산협회와 화순난연합회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해 상생 협력을 다짐했다.

3개 기관은 한국 난 산업 육성, 원예작물 생산·판매 활성화, 신규 시장 진출 연계, 전국 단위

박람회 공동 홍보 등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으며, 아울러 화순난연합회와 한국난문화협회 부산협회도 이날 별도의 협약을 맺고 민간 차원의 난 문화 확산에 힘을 더한다.

군은 이번 다자간 협약을 기점으로 전국 단위 전시회 참여를 확대해 지역 농업의 위상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최인환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교류가 침체된 난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이병철 기자

## 곡성군, 섬진강서 '산불 예방 캠페인' 홍보

郡 공무원 12km 러닝 안내

곡성군 공무원들이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을 맞아 섬진강변 일대를 직접 달리며 화재 예방 메시지를 전하는 이색 캠페인을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22일 곡성군에 따르면 최근 군 산림과 소속 직원 등은 자발적으로 모여 섬진강 일원 약 12km 구간을 달리는 '산불 예방 러닝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런 행사는 현수막이나 마을 방송 등 기존의 단방향 홍보에서 벗어나, 산중객과 지역 주민이 직접 보고 공감할 수 있는 현장 밀착형 홍보를 위해 마련됐다.

참여자들은 산불 예방 문구가 적힌 깃발을 들고 강변을 누볐으며, 이동 중 만난 관광객들에게 전단지 등을 건네며 논·밭두렁 소각 금지, 입산 시 인화물질 소지 금지 등 핵심 안전 수칙을 직

접적으로 알렸다.

군은 앞으로도 일상과 접목한 다채로운 참여형 홍보를 통해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 소각 등 화재 유발 위반 행위에 대해서

는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한순간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막대한 산불 피해를 막기 위해 현장을 직접 발로 뛰고 있다"며 "안전한 산림 보호를 위한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곡성=김영필 기자



## 순천시, 사각지대 지원 '청년다다름사업' 선정

지역 내 19-34세 20명 대상

식비·건강검진 등 통합 케어

순천시는 22일 "청년재단이 주관하는 국비 지원사업인 '청년다다름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이달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진로 고민과 취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취약 청년들의 일상 회복과 사회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개인별 상황을 진단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통합 지원 체계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 이하 취약 청년 2

0명으로, 시는 선발된 청년들을 대상으로 1대1 심층 상담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진로 및 심리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6개월간 매월 최대 30만원씩 결제할 수 있는 식비 카드를 지급하며, 연 1회 종합건강검진도 함께 지원해 경제적 부담 완화는 물론 건강 관리까지 촘촘히 챙길 방침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맞춤형 지원이 청년들이 다시 일상을 세우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 개개인의 삶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체감형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천=양홍렬 기자

## 고흥군 '복숭아씨살이좀벌' 적기 방제 당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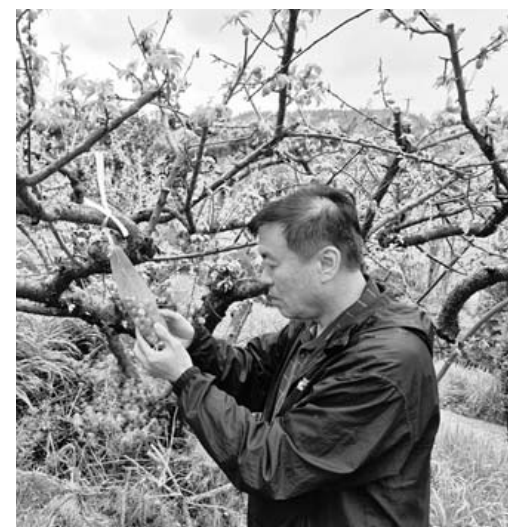
고흥군은 22일 "최근 매실과 자두 등 핵과류 농가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주요 해충인 '복숭아씨살이좀벌' 성충이 발견됨에 따라 철저한 초기 적기 방제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복숭아씨살이좀벌은 씨앗 속에서 월동한 유충이 봄철 기온 상승과 함께 성충으로 우화해 어린 열매에 알을 낳으며, 부화한 유충이 씨방을 파먹어 심각한 조기 낙과와 수량 감소를 유발한다.

특히 유충이 씨앗 내부로 파고든 이후에는 약제 방제 효과가 크게 떨어지므로 산란 초기 단계의 선제적 대응이 피해 예방의 핵심이다.

고흥 지역의 적기 방제 시기는 이달 중하순부터 다음 달 초까지며, 이 기간 7-10일 간격으로 2-3회 집중적으로 약제를 살포해야 한다. <사진>

또한 약효 저하와 약해 발생을 막기 위해 기온이 낮고 바람이 적은 오전 10시 이전이나 오후 4시 이후에 방제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권장된다. /주성학 기자



고흥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초기 대응 시기를 놓치면 사실상 방제가 매우 까다로운 해충"이라며 "성충 발견으로 본격적인 산란이 시작된 만큼 철저한 초기 방제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주성학 기자

## 여수시 '어업인 경영 안정' 보험 지원

20억 투입... 어선·어선원 등 혜택

여수시가 해상 재해로부터 지역 어업인들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조업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수산정책보험료 지원에 나선다.

22일 여수시에 따르면 올해 총사업비 20억6천만원을 투입해 어선, 어선원, 어업인 안전보험 등 총 3종의 보험료 자부담분 일부를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국비 선지원 후 남은 어업인 부담금을 지자체가 추가로 덜어주는 방식으로, 분야별 예산은 어선과 어선원 보험에 각각 10억원, 어업인 안전보험에 6천만원이 배정됐다.

모든 어선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어선원 보험은 자부담금의 10-60%를, 어선 보험은 t급에 따라 5-35%를 차등 지원한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관내 수협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밖에 산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영세 어업인을 위한 안전보험 역시 30%를 지원한다.

여수시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재해 위험 속에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보험 가입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20억원의 지원해 총 822건, 255억원의 보상금 수령을 이끌어내며 어가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 /여수=김진선 기자